

빛의사람들

2018.2.

27I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김석원 파트리치오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팔마 일 조바네의 '성전에서의 예수 봉헌'

(Presentation of Jesus to the Temple By Palma il Giovane, 1565)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4-35).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인문학'

지난 2017년 11월 20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교정사목 센터에서 '사랑의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책임의식 향상과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10명의 청소년과 김석원 파트리치오 위원장 신부님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각 분

야의 전문가들과 교수님들께서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40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사랑의 인문학 교육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치소, 교도소의 수용자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향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의

각 교정시설별로 2017년의 봉사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17년의 평가와 나눔은 2018년에도 있을 교정시설 자원봉사에 대한 준비와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의에 함께 해주신 남부교도소 교도관 황진석 프란치스코 주임님과 서울구치소 교도관 서영태 주임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봉중고등학교 겨울신앙학교

1월 9일(화)~12일(금) 고봉중고등학교(소년원)에서 겨울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4일간 진행된 신앙학교에서 유상철 사도요한 부제님과 살레시오 수사님들께서는 고봉의 아이들과 친한 형들처럼 다정다감하게 지냈고, 봉사자 형제자매님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12일 파견미사에서 강봉묵 마티아 신부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와 생명의 물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죄 많은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와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학교의 기쁜 순간들을 추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터미사

1월 13일(토) 해밀(범죄 피해자)가족과 출소자들을 위한 센터미사가 현대일 루도비코 부위원장 신부님과 이상원 사도요한 부위원장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현대일 신부님께서는 “성공을 뜻하는 영어단어 success의 어원인 라틴어 succēdō의 첫째 의미가 굴복하다라는 뜻이며, 받아들이다, 감수하다, 계승하다, 그리고 마지막 뜻으로 성공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성공이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면서 서로의 뜻을 잘 이어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셔서 따르지만,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었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귀기울이고, 대화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 서로에게 상처받고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더 귀기울이고 형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서 '성공'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강론하셨습니다.



후원회원 월례미사

1월 15일(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교정사목 2018년 첫 번째 월례미사가 교정사목 신부님들과 강봉묵 마티아 소년원 담당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주례의 김석원 위원장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칼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

어가게 되고 많은 땅을 선물 받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된다. 이런 칼렘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이다. 결국, 자신의 이름처럼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고 누구든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도 개의 해를 맞이하여 칼렘처럼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성체조배와 성체강복으로 2018년 첫 번째 월례미사는 더욱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떠나며 ...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이나 희생제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보다 낫소.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1사무 15,22-23).

† 찬미 예수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요한 6,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높은 성덕에 오르는 것이라고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도 말했습니다.

“은총이나 계시, 황홀경 그리고 은사도 영혼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하느님과 나의 깊은 일치가 영혼을 완전하게 해준다.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긴밀하게 합쳐질 때 나의 성성(聖性)과 나의 완성이 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1107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명(順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순명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순명하며 교정사목을 떠납니다.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떠나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이 십니다. 물론 교회의 행위가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명’입니다. 순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목했습니다. 비록 1년간이지만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사제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점을 깨닫도록 교정사목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사목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당당하게 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재소자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니,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어느 곳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원 파트리치오 신부 드림.

침묵하는 성체 조배는 수준 높은 기도다.

카를로 카레토는 “성체 조배보다 더 어려운 기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체 앞에서의 침묵은 ‘자신의 감정, 기억, 상상, 감각’을 극복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약간의 ‘기쁨과 위로’가 있으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지루 하거나 무미건조’하면 기도를 중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도의 ‘양과 질’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느님보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좀 더 성숙한 기도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께 ‘영광과 흠숭’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 6,10)라고 하며 먼저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하는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우선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체 앞에서의 침묵은 자신의 ‘감각, 감정, 기억’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성체 조배는 순수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온전한 마음의 행위라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수준 높은 기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체 조배만큼 주님께 기쁨을 주는 것도 없다고 성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기도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은 침묵하는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침묵은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침묵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침묵을 할까요?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복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살고 계시는 하느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혼은 차츰 하느님과 함께 사는 감미로움에 젖어 들고, 천상 분위기 속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온전히 잠기기 위해 자신을 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사랑만이 남습니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기도 중에 그분을 흠송합니다. 저는 묵묵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조배 중에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는 것조차 안절부절 못하며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말대로 “하느님이 가장 즐기시는 찬미는 바로 말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묵은 성덕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영혼은 상덕에 도달하지 못한다.

성령께서는 마음이 산란하고 수다스러운 영혼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명상하는 영혼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명상하는 영혼, 침묵하는 영혼에게 당신의 고요한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하느님께서는 뒹뒹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하고 꿀을 모으지 않는 벌집 속의 수벌같이 재잘거리는 영혼에게는 당신을 주지 않으신다. 말이 많은 영혼은 속이 비어 있다. 이런 영혼은 필수적인 덕도 갖추지 못하고, 하느님과 친밀하지도 않다. 하느님께서 거처하는 고요한 평화와 침묵의 깊은 내적 생활은 의문의 여지도 없이 불가능하다. 내적인 침묵의 감미로운 맛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영혼은 들떠 있는 영이고, 자신만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침묵을 방해한다.

예수님은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다스러운 영혼 안에서는 쉴 수가 없다. 끊임없는 소음은 나를 지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소음의 와중에 영혼은 나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다.

침묵은 깊은 영성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언제나 말하고 싶어 하고 생각을 발표해 버리는 영혼은 하느님의 사정에 어둡습니다. 이런 영혼은 지체 없이 침묵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어떤 대화도 삼가야 합니다.(삼위일체의 엘리사벳 복녀).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김상명 말가리다 / 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서울구치소의 형제들을 만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어갑니다. 여러 선배 봉사자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저는 심정적 기복이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잘살아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왔습니다.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딸로, 아내로, 엄마로 최선을 다하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갑작스러운 부르심으로 이곳에 와서 형제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습관처럼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고, 보이는 결과가 없음에 실망하곤 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을 형제들 마음을 가늠해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쓸쓸할까 하고 말입니다. 어디서든 도움이 되는 봉사자, 하느님 마음에 드는 봉사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정말 번번이 숙제를 안고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느님, 여기서 제게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정도 없이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쨌든 여기로 불러 주셨으니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형제들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없고, 계산적이었는지, 살아오던 대로 나와 가까운 세상의 목적들만 바라보고 하나씩 이루 것에 만족해오던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4년 동안 교정시설 봉사를 하며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완고한 기준 등에 변함은 없기 때문이지만, 교정시설 봉사를 하면서 하는 다양한 판단이나 실행의 과정을 겪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 때까지 갈팡질팡하는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보며 함께 해주신 미리암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형제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저를 봉사자로 만나 많이 섭섭했을 형제들 ... 그들에게 짧게 허락된 만남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보시기에 충실하고 만족스럽게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생각해봅니다.

하느님, 아시지요? 당신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모두가 현재 저를 있게 하려고 허락하신 시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주님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제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청합니다. 🙏



누가 나의 가족인가?

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홍보부




니말 시리 반다라(40)
[사진 중앙일보]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 화북리의 한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집 밖에서는 90세의 어머니가 아직 안에 계시다며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던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니말(40)씨가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있다는 아들의 외침에 니말씨는 주저 없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할머니를 업고 불 속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하셨지만 니말씨는 머리와 손, 기도에 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사경을 헤매다 다행히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냐는 질문에 “엄마 생각이 나서 들어갔다.”라고 서툰 한국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몇 년 전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병원에 간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병원에

갔다가 적발이라도 된다면 벌금을 내고 추방 되어 고국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은 타국에서 와 한국말로 서툰 니말씨를 마을 주민들은 아무 편견 없이 가족처럼 대해 주었고, 그런 가족 같은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용감하게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 마련입니다. 니말씨는 이번일을 계기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서 해방되고, 480만원의 벌금도 면제되었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서 그를 향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을 빛낸 의인으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니말씨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타인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이처럼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용기와 힘을 주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의인도 하나 같이 타인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며 “내 딸 같아서 그랬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다.”, “우리 가족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에게 가족은 단지 같은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닌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칭하는 말인 듯합니다. 에페소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에페 2,17-19).

교정사목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족입니다. 주변의 이웃들, 친구, 직장 동료, 나와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눈 사람, 소외 받는 이들 그 밖의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내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성큼 다가온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인문학’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소 청소년 이야기

조극훈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철학박사

●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사랑의 인문학이 다가간다.

지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육실에서 서울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사랑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후원과 서울보호관찰소의 지원 그리고 아시아교정포럼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아래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외 청소년 인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40시간으로 진행된 사랑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들의 아픔을 느꼈다.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김석원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없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 저항의식이 강한 청소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 학생과 홍○○ 학생이었다. 너무 상반된 수업 태도와 자세 때문이었다. 하루 8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은 성인들도 쉽지 않은 일이다. 홍○○ 학생은 전형적인 모범생의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한 반면, 이○○ 학생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업의 방향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 홍○○ 학생은 예상했던 대로 5회차까지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 진행자에게 문자까지 보내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주의가 산만하고 저항을 보였던 이○○ 학생도 주어진 시간에 참가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마음속에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따뜻한 사랑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사랑은 햇빛과 같아서 모든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다.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편지글의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절실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둠 속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숨기기 십상이다.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쇠도 녹일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 중세 교부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 354-430)는 젊은 시절 방황의 시간을 보냈으나 어머니 모니카의 17여년에 걸친 기다림과 사랑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종교는 바로 이러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 자존감을 회복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대체로 낮은 자존감과 미비한 판단력 및 규범의식을 보인다. 이로 인해 쉽게 비행과 범죄를 저지른다. 낮은 자존감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성취의욕의 부재로 이어지며, 미비한 판단력과 규범의식은 선악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인생과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좁다. 따라서 인문학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교육의 밑바탕에는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2017년을 돌아보며

찬미예수님.

2017년 한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겨울 날씨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강 물도 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림 제3주일의 시작입니다. 대림환이 벌써 3번째 불을 밝히고 있겠네요! 돌이켜 보면 제겐 2017년이 너무도 힘들어 가혹한 한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어(囿)의 몸으로 묶여 참 긴긴 세월을 보내며 무던히도 아파했던 순간들, 가족들의 아픔, 삶의 무게 앞에 나약하기만 했고 인간의 무기력을 마지막까지 버티며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쳐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허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너무도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오늘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묵주 알을 손에 꼭 쥐고 어머니께 전구를 청하며 묵 놓아 부르짖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파트리치오 신부님.

올 한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의 기도 소리에, 작은 신음에 귀 기울여주셔서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아기 예수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만상이 잠든 밤" 이 밤에 우리는 깨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신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Merry Christmas!

P.S.

부족하지만 작은 정성을 담아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주님을 닮은 성인 사제의 삶을 사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450회	묵주 기도: 2205단	희생: 150회
화살 기도: 150회	하느님 재비심 기도: 1000단	주님의 기도: 1000회
성모송: 1000회	영광송: 1000회	선행: 150회

2017. 12. 18.

문○○ 요셉 올림.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삶의 원동력을 얻는 문○○ 요셉 형제에게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

혼자 쓰는 방에서의 극히 단순한 '살림살이' 조차도

바쁜 것을 핑계로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 이내 지저분하게 되곤 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의 방을 치우고 정리하는 일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내 안에 가득찬 미움과 불평과 오만의 먼지, 분노와 이기심과 질투의 쓰레기들을

쓸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과 겸손, 양보와 인내와 관용을 심어야겠다.

내 방 벽 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력을 걸듯이 내 마음의 벽 위에도

'기쁨' 이란 달력을 걸어놓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음의
달력

(2)

양삼우
도로테아

예수님을
달아가는
마음으로...



후원알림마당

어서 오세요

1월에는 신정식 요한, 이종열 마리아, 조점판 파르실라, 원춘옥 글라라, 이명자 안나, 김경미 마리아, 최경숙 알베르타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으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1.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1월 초 일괄발송)
- 단, 기부금영수증은 본 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원에게 한하여 발급 가능 하오니 연말정산 기간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절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8년 3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해밀(피해자)가족과 출소자를 위한 센터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교정센터 성당 - 「2월 10일(토) 오후 7시」

* 맛있는 저녁식사,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봉헌하는 미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수용자 가족모임을 하고자 합니다.(무지개 모임)

가족, 친지, 형제들의 수감으로 인해서 정신적, 심리적, 신앙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만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 센터미사를 하고 있으니 참석바랍니다.

● 행사알림

- 2월 5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2월 10일(토)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회 / 교정사목센터
- 2월 10일(토) 센터미사 / 교정사목센터 성당
- 2월 10일(토) 해밀, 가온길, 무지개 모임 / 교정사목센터
- 2월 24일(토)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51차 정기총회 / 교정사목센터
- 2월 26일(월)~28일(수) 한교협 봉사자 연수 / 대전 정하상 교육관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S C 109-10-2763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 원 신 청 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